〈A1면에 이어〉

지난해 취임한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국민 마음 건강과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천명한 '선명상'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전국신도대회'를 개최할 생각"이라며 "중앙신도회 자체 예산으로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의 불자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신도회는 젊은 층 포교에 진력할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 불제자 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찰 경내에 어린이·청년 전용 공간을 확보해 '불교 접근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불교 세계화'에도 나선다. K-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동국대 및 불교 유관단체와 MOU를 체결, 선명상 세계화와 글로벌 전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신행·명상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로 서른 살이 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국내외 불교 사회복지 사업 알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복지재단은 30년 역사와 사업, 성과를 조명하고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을 소개하는 '불교사회복지 편람'을 발간할 예정이다. 편람에는 1995년부터 이어진 복지재단의 역사와 주요 시설, 참여 사업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다.

이를 통해 불교사회복지가 미래에 나아갈 길의 이정표가 되겠다는 각오다. 또한 창립 30주년 대법회를 봉행해 자비나눔이 가득한 미래를 주도할 것을 다짐한다.

이어 복지재단은 2024년 한해 국제적 관심을 이끈 저출산 대책 사업 '나는 절로'를 지역 곳곳으로 뻗어나갈 계획이다. 이제까지 '나는 절로'가 수도권 참가자 위주였다면, 2025년에는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2025년에는 전국교구본사가 소재한 지역에서 청년들을 모집해 더욱 다채로운 '나는 절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본격화'

12월 24일, 중앙종회 연석회의서
특별법 저지 대책위 구성 결의해
대책위원장 종회의장 주경 스님
위원에 부·실장스님 등 참여해
법안 저지 요구문 발송 계획도
1월 2일 상임위 회의로 내용 확정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가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대응조직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조직 구성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와 직접 소통에 나선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기2568(2024)년도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대응조직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조직 구성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부의장 경암 스님, 총무분과위원장 심우 스님,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 사회분과위원장 진각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스님 9명이 참석했다. 또한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진경 스님이 배석했다.

대책위원회는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다.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을 위원장으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총무원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대책위원진에 추천됐다.

대책위원회의 대응 실무는 상임위원회 스님들과 실무팀이 담당한다. 총무분과위원장 심우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상임위원회에는 △총무분과위원회 위원장, 간사 △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 간사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위 위원장, 간사 △종교평화위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사회부장 △포교부장 스님들이 포함됐다. 또한 국회와 실질적인 소통을 담당할 실무팀에는 △총무차장 △기획차장 △사회차장 △포교차장 △대외협력팀장 △홍보팀장 △중앙종회사무처 팀장 등이 참여한다.

대책위원회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상정 저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대책위원회 명의로 국회에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반대 공문을 보낸 후 국회 측에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곧 바로 대책위를 확대 조직할 것"이라며 "확대될 대책위는 포교사단, 신도단체 등이 포함된 '범불교 대책위원회'로 출·재가 불자 모두가 합심해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심우 스님은 "종교 행사는 찬성하지만, 그것을 국민 혈세로 항구적인 지원을 한다는 법안은 종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특별법 반대 공문에는 '세계청년대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이 가진 법률적 부당함과 통과를 막아달라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 회의를 열고 국회에 송달할 공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법률자문을 기반으로 한 특별법 위헌 요소, 특별법 저지 요구 등이 포함된다. 공문은 1월 첫째주에 국회 발송 예정이다.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선출

126차 이사회서 만장일치



재단법인 불교방송 제9대 이사장에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제126차 회의를 열고 덕문 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이사장에 수불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선출 직후 수불 스님은 "불교와 BBS불교방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면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사님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덕문 스님의 이사 후임으로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을, 임기가 만료된 도진 정사의 이사 후임으로 진각종 포교부장 원영 정사를 선임했다. 재가 이사인 노부호·박찬국 이사의 재선임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신중일 기자

혜거 대종사 49재 엄수…"화엄세상 구현"

12월 22일, 평창 월정사 적광전
화엄경 소론찬요 22 · 23권 봉정
헌향 · 헌다로 추모…300명 동참


조계종 원로회의장 자광 대종사와 포교원장 선업 스님이 헌화로 혜거 대종사를 추모하고 있다.

"스님, 지금은 여여(如如)하십니까."

하얀 눈으로 온통 뒤덮인 오대산. 물소리도, 새소리도 멈춘 산사는 혜거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듯 고요 속에 잠겼고, 오직 스님과 불자들의 염불소리만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인 사부대중은 혜거 대종사를 이어 '화엄세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불교경전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역경불사에 매진하고 강남 도심 포교를 이끌며 전법에 매진한 여산당 혜거 대종사의 49재가 지난해 12월 22일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에서 엄수됐다.

49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장 자광 대종사, 월정사 회주 현해 대종사, 월정사 선덕 각수·삼보·원행 스님, 주지 정념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상좌 대표 무애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과 탄허불교문화재단, 금강선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정사 무이 스님과 혜안 스님의 집전으로 49재가 거행되는 동안 동참대중은 헌화와 헌다를 한 뒤 삼배를 올리며 혜거 대종사의 원적을 추모했다.

앞서 혜거 대종사의 화엄경 소론찬요 22·23권 봉정식도 봉행했다. 전 26권 발간을 목표로 했으나, 5권을 남기고 대종사는 원적에 들었다. 이에 상좌 스님들은 혜거 대종사의 49재에 맞춰 22권과 23권을 발간했고, 2025년 탄허 스님 열반일(음력 4월 24일)에 맞춰 나머지 3권도 추가 발간해, 전권 발간을 마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효찰대본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 주 사

주 지 성효

사부대중 일동

(18347)경기도 화성시 용주로136(송산동)
(031)234-0040/팩스(031)234-2818

